

특별메세지 - 돌봄Ⅳ.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1. '삶'

삶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하나님과의 사귄에 토대가 된다. 신앙의 성숙도는 내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허락하셨다. 말씀의 처음이 창조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창조적 관점이고, 존재적 관점이라 말할 수 있다.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는 '삶'을 어떤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1)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존재였다. 걱정이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선약과 하나만 금기). 하나님과 아담이 누렸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였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예이다. 별거벗었다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는 단계, 자유의 단계를 말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에덴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며,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이다.

(2) 깨어진 삶

[창세기 3:7-10]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8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약과를 먹은 일이다. 언약이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안에 있었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다. 순행이 아니라 역행, 역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순응이 아니라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잃게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파괴의 과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다.

인간은 죄를 통해 수치스러운 나를 보게 되었다(7절). 원래 벌거벗은 몸이었다. 벌거벗은 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수치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범죄 후에 보여진 아담의 모습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자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8절,10절).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과 이를 바라보는 자기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3) 연약함, 수치심,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수치심은 있으나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는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도 아담의 몸이라는 것이다. 남의 몸이 아니다. 보기싫은 그 모습 또한 내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런 몸을 아담은 용납하지 못한다. 가리고 숨기에 급급하다. 해결이 없다. 덮어둔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마음이다. 이 세상안에 있는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세상은 냉정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세상의 풍조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파괴하는 일로 나타난다.

2. 하나님과 삶

(1) 하나님의 질문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9절에 “네가 어디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놀라운 질문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 '존재 그 자체'를 찾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비추어진 아름다운 아담만 찾으신 것이 아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수치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담' 그 존재를 찾으셨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한다.

아담의 대답은 사탄의 승리였다. 그의 승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인간이 죄로 인한 단절로 인해 자기자신만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오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악과 편견에 갇힌 순간이다. 이것은 바로 영이 육이 된 순간이며, 파멸의 순간이다.

(2) 탕자의 위대함 - 수치심 vs 죄송한 마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신약에 탕자의 비유로 나타난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한다.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수치스럽고 허망한 모습의 탕자가 된다. 자신감을 잃었다. 구걸하는 삶, 자기비하의 삶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 모습은 첫번째 아담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탕자는 한다. 아담은 자신의 수치심에 갇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다. 탕자의 위대함은, 수치스럽고 연약한 자기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관점을 아버지에게로 돌렸다는 점이다. 이런 탕자의 마음은 하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뿐이라는 것이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지만, 죄송한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탕자의 결론은 탕자의 믿음대로 되었다. 아버지에게 죄송했지만 자신이 돌아가 다시 살 수 있는 곳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 다시 돌아오는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탕자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죄인된 인간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탕자의 성공과, 실패와, 강함과, 약함을 초월한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3) 삶이란?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삶이 보여주는 어떤 결과가 아니다. 삶의 주체가 되는 우리 자신이 삶이다. 모든 것이 삶이다. 아름다운 것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도 삶이다.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 뿐만 아니라, 좌절과 실패도 삶이다. 그리고 삶은 여정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모양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베드로, 다윗, 요셉 등 믿음의 사람안에 나타난 삶은 좋은 일 뿐만이 아니라 나쁜일, 겨울처럼 추운 부분도 인생이요 삶이 되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이들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존재적 변화는, 내 관점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변화요, 삶 속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다.

3.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다.

[요한복음 21:12-13]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한결같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그로 인해 자괴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존재적 사랑을 보여주신다. 조반을 지어 제자들을 먹이셨다. 제자들이 좋아하는 떡과 생선을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준비 하셨으리라.

이 모습이 바로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담이 범죄한 에덴동산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는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오늘 그 사랑앞에 서야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회복은 더 빠르다. 행위가 아니다. 존재적으로 나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릴 수 있다.

4. 적용

- (1)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 (2)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모든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 (3)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롭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적용하라)

그러면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